

1727년 草梁倭館 修理의 日本 匠人과 道具에 관한 연구

-對馬島宗家文書「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을 중심으로-

정 예 정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서 치 상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주제어 : 초량왜관, 건축기술교류, 일본건축기술자, 일본건축도구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朝·日 양국의 국제교역장으로 알려진 草梁倭館은 1678년 창건이후 1872년까지 약 200년간 존치되면서 21차례의 수리공사가 일어난 곳이다. 현재, 부산의 중앙동·동광동·광복동·대청동 일대의 11만 여 평의 대지와 東館 三大廳 등의 주요 건물을 포함한 56종의 다양한 시설은 조선정부의 소유였고, 그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조선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하지만, 600여 명에 달했던 왜관상주 일본인들은 그들의 양식대로 왜관을 조영하고자 하였고, 정치적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교린정책을 추진하던 조선정부는 草梁倭館의 주요건물을 일본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 이유로 草梁倭館 창건 때 일본 건축기술자들이 초량에 들어와 공사를 수행한 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수리공사에도 이들의 참여가 계속되었다. 일본기술자들은 왜관을 일본식으로 짓기 위해 일부 건축부채와

건축도구를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싣고 왔다.

이렇게 일본물력의 반입이 허용되었지만, 그렇다고 일본양식이 무한정 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草梁倭館의 수리공사는 朝·日 양국의 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민감한 문제였기에 상황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였다. 여러 가지 난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차례 수리가 이행되어져 온 배경에는 ‘誠信之道’라는 양국간의 우호를 결의하는 구호가 있었다. 이 ‘誠信之道’를 지키기 위해 조선은 수리비용을 부담하였고, 일본은 반드시 조선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했다. 조선의 감독으로 이루어진 役事였기에 일본공장들은 조선공장과 함께 작업해야 했다.¹⁾ 그런 점에서 草梁倭館은 朝

1) 拙稿, 『草梁倭館의 造營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1. pp.97~98. (소략) 草梁倭館 창건당시(1678년)에는 왜목수 150명과 조선목수가 함께 조영활동을 펼쳤다. 창건시기와 수리초기(1684~1715년)의 조선목수들에게는 일본양식이 생소하였으므로, 왜관조영 초기에 조선은 왜목수에게 역가를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리 중기(1723~1828년)에는 대규모의 役事を 통해 다수의 조선工匠과 일본工匠이 草梁倭館이라는 役所에서 서로의 건축문화 및 기술을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리후기(1831~1864년)에는 조선공장이 주체가 되어 役事に 참여하였다.

· 日 양국의 건축기술자들이 상호의 기술을 교류하는 장이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선보다 훨씬 이른시기부터 조선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草梁倭館의 전신인 豆毛浦 倭館 시절부터 일본에서는 조선의 건축을 학습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²⁾ 또한 1645년의 豆毛浦 왜관수리에 대해 『倭館移建謄錄』에는 조선목수 70명과 大工 28명, 小工 및 普請役 52명³⁾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조선목수 70명과 왜목수 80명이 서로 같은 役所에서 공사를 한 사실을 시사한다. 이 役事는 공식적으로 조·일 건축기술의 교류가 가능했던 첫 번째 役事인 것이다. 이렇게 조일 양국의 공장들이 동일한 役所에서 작업하게 된 유래는 초량왜관이 존재 이전부터였으며, 이후 초량왜관의 신치와 수리를 거둬할 때에도 전례에 따라 양국 공장이 함께 役事に 참여하였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술 교류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양국 장인들은 서로 다른 건축도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조선에서 일본식 건축도구는 공사장 밖으로도 유출되었던 것 같다. 왜관수리가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를 조금 지난 1796년, 화성성역이 진행될 때 일본 톱(倭鋸)을 서울의 시장에서 구입했다는 기록⁴⁾은

2) 國譯 『倭人求請謄錄』3卷,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6pp.51~52. 1665년 정월, 東萊府使 安縝의 狀啓에는 對馬島主가 조선의 家屋제도를 구경하고 싶어서, 조선의 재목과 목수를 사들여서 왜관에다 別堂을 짓고, 丹青을 화려하게 하였다가, 철거 후 對馬島로 운반하여 다시 세워서 구경거리로 삼겠다고 하는데, 별당 5칸에 들어가는 목재 및 솜씨 좋은 목수 15명과 畫員 2인, 단청에 들어갈 朱紅, 黃丹, 白粉 외에 기타 조선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채색은 모두 값을 주고 사들여 사용할 뜻을 東萊府使에게 아뢰어 달라고 訓道에게 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倭館移建謄錄』 丙戌 十月 十一日

4) 正祖저, 李江魯·方東仁역, 『國譯 華城城役儀軌-下』, 권5, 財用 上, 수원시, 1979. 倭鉅 1개를 4전 5푼에 서울에서 사음.

왜관수리와 일본제 건축도구 유입과의 상관성을 상정하게 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일본도구의 유입은 당시 同役所에서 일한 조선공장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물론 새로운 도구의 유입이 종래 건축기법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은 차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草梁倭館의 조영을 위해 건너온 일본기술자들과 그들이 지참했던 건축도구에 주목하여, 이를 건축기술사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그림으로만 개관이 가능한 당시 草梁倭館의 건축양식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작업이며, 조·일 양국 기술교류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 및 전개방식

본 연구에서는 1727년에 시행된 草梁倭館의 <東館三大廳 修理>를 고찰 사례로 삼았다. 당해공사가 이행된 1720년대는 초량왜관의 수리공사가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시기였다. 또한 본 공사의 대상건물은 소위 ‘東館三大廳(왜관최고 책임자 館守의 집무소인 館守倭家·외교교섭관 裁判倭의 숙소인 裁判家·양국 상인의 무역장소인 開市大廳의 3개 건물)’⁵⁾이라 불리는 왜관 내 핵심건물인 만큼, 1727년 수리공사의 분석은 초량왜관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관련된 조선 사료에는 『倭館移建謄錄』·『倭館修理謄錄』·『邊例集要』 등이 있고, 일본 사료에는 『對馬島宗家文書』,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이 있다.

5) 사료에 따라 館守家は 館守倭家·館守屋, 裁判家は 裁判倭家, 開市大廳은 市大廳이라고도 표기한다.

『倭館移建謄錄』은 두모포왜관을 초량으로 옮길 때의 기록으로, 경상감사와 동래부사 등의 장계와 비변사의 회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678년 4월의 왜관이건을 중심으로 왜관의 이건과 수리에 따른 인원동원과 물자조달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倭館修理謄錄』은 1696년 5월부터 1723년 9월 사이에 왜관수리에 필요한 木手·工匠·監董 등의 인원동원과 물자조달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왜관의 생산활동을 고찰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邊例集要』는 임진왜란 이후인 1598년(선조 31) 겨울부터 1841년(헌종 7) 2월까지의 교린관계를 기술한 책으로 18권 1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 11권, 館宇條는 왜관 주요건물 및 관련 公廨의 조영기록과 인력동원, 물력조달, 감동역관의 활동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왜관수리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1745년 이후의 수리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對馬島宗家文書』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은 일본 대마도주 宗氏가 대마도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사료군인 『對馬島宗家文書』⁶⁾ 가운데 부산 초량왜관의 주요건물인 東館 즉, 館守屋·市大廳·裁判家에 대한 1727년의 수리공사를 기록한 문서이다. 대부분의 소감동이 개별건물의 퇴락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시행된 것임에 비해 본 공사는 동관삼대청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16건의 소감동⁷⁾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공사로 사료

된다. 원래 본 사료는 수리공사를 위해 대마도인 왜관수리 책임자 우메노 등이 내한할 일본 大工組織에 대한 임금과 물력가를 조선측에 청구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만큼 사실의 정확성에 주안점을 둔 사료이다. 양국이 지켜야할 절목과 조선이 재검토한 내용과 함께 일본공장들이 대마도 내에서 지참하여 조선에 들어온 공사도구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사료들에 대한 주요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史料의 주요정보

문헌명	수록시기	官署	소장처
倭館移建謄錄	1640~1723	禮曹典客司	규장각
倭館修理謄錄	1724~1745	禮曹	규장각
邊例集要	1598~1841	禮曹典客司	규장각
館守屋·市大廳· 裁判家 修理記錄	1727~1728	對馬島宗家	국사편찬위원회

본 연구는 위의 朝·日 양측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사료를 통해 조정의 조영의도 및 관리체계를 파악하는 한편, 약정된 범위 안에서 일본양식을 고수하려 했던 일본의 의도를 이해하여 초량왜관 수리의 배경을 규명한다.

둘째, 일본 사료를 통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일본 조영조직의 구성과 직능을 분석한다. 이는 초량왜관의 건축양식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와 양국 기술교류의 사실을 추론해 내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회)의 크고 작은 수리로써 경영되어 졌다. 拙稿, 『草梁倭館의 造營에 관한 研究』, 2001년 2월,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p.63.에는 초량왜관의 수리연혁과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6) 이훈, 「[자료소개]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 『역사와현실』 제28권, 역사비평사, 1998. 06

14세기 중엽 중씨의 지배체제가 안정되는 시기부터 1871년 메이지 일본이 폐번치현(廢藩置縣)을 단행할 때까지 거의 540년간의 문서가 망라되어 있는 이 사료군은, 에도막부시대 대마번이 변정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생산해낸 근세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7) 초량왜관은 창건이후 총 21건(대감동 5회, 소감동 16

24 논문

셋째, 당시 공사를 위해 지급했던 물력의 종류와 내역을 파악하는 한편, 특히 일본기술자들이 내한시 지참했던 건축도구의 종류와 용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양국 건축기술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공사 배경과 물력 마련

2-1. 일본의 수리요청과 조선의 허가

草梁倭館의 핵심건물인 館守屋·市大廳·裁判家에 대한 <東館三大廳 修理>가 시작된 해는 1727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수리를 요청한 때는 2년 전인 1725년 3월이었는데, 『倭館修理謄錄』에 당시의 상황이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東萊府使 趙錫命이 왜관의 東館 三大廳의 수리처를 살펴보니 가벼운 공사가 아니어서, (상부기관과) 쉽게 의논할 일이 아니라 한다. 이에 回移하라는 동부승지의 훈령이 있었다...(중략)... 東萊府使는 東館이 傾頹하여 하루를 버틸 수 없는데도 공사를 요청해 온 差倭를 책유하였다.⁸⁾

이 처럼 수리를 미루려는 조정의 의지는 매우 강해서 동관이 경퇴하는 긴박한 사정에도, 먼저 훼손된 곳만 수보하고 나머지는 매년 조금씩 추진하라는 동부승지의 回啓가 내려졌다.

같은 해 8월 동래부사 李重協의 成貼狀啓에도 일본의 수리 요청이 거듭되었던 것을 보면, 훼손이 심하여 요청된 수리일지라도 바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본의 불만이 더 해져, 裁判倭가 조선 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裁判倭는 朝·日 양국의 공무를 주관하는 상위직으로, 草梁倭館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 정부가 특별히 대우하던 倭使였다.⁹⁾ 그런 만큼 수리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어 조정은 동래부사 李重協, 軍官 李燾, 訓導 金時璞, 別差 玄尙老 등이 수리처를 직접 적간하도록 했다. 당시 李重協 등이 東館 일대를 적간한 후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館守家 蓋瓦 四面의 簷角이 頹落했다. 板粧, 기둥 밑이 모두 상해서 大門과 連造狹門이 퇴락할 지경이다.
- 裁判家는 퇴락의 정도가 館守家와 다르지 않다.
- 開市大廳은 蓋瓦의 簷角과 內外棟樑이 풍우로 인해 누수되고 상했다.¹⁰⁾

동관 삼대청의 주요 건물들이 퇴락하여 수리가 절박한 모습으로 묘사된 이 장계에는 동관 3처가 원래 조선에서 조급하는 것이고, 각 鎭·浦에서 나누어 담당했지만, 이번에는 훼손이 심해 鎭·浦에 맡길 수 없으니, 더 훼손되기 전에 蓋瓦·棟樑·板粧등을 비롯한 修葺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적혀 있다. 그러나 이를 검토한 備邊司에서는 監董官이 失任한 관계로 먼저 監董官을 차출한 후 物力을 마련해서, 내년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이렇게 거듭된 수리 요청에도 조선이 공사 착수를 지연한 까닭은 당해공사가 이른바 大監董이 아닌 小監董이었기 때문이다¹¹⁾. 원래

9) 김건서 저·하우봉 역, 『國譯 增正交隣志』 館宇, 민족문화추진회, 1998.

10) 『倭館修理謄錄』, 乙巳 3월15일

11) 김건서 저·하우봉 역, 『國譯 增正交隣志』 館宇, 민족문화추진회, 1998. 大監董은 25년 마다 약정된 수리이고, 小監董은 화재로 인한 피해나 일정 기간이 지나 퇴락한 경우의 수리이다.

8) 『倭館修理謄錄』, 乙巳 3월15일

小監董의 경우, 매달 말 동래부사의 명령 하에 訓導·別差와 監官이 草梁倭館을 순시하였는데 이 때, 건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가 결정되면 각 진에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小監董의 원칙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대개 일본측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감동관이 수리 관련 문제를 담당하였다¹²⁾.

그런 이유로 조정은 수리요청을 여러번 미루다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감동관이 정해지고 물력조사가 끝난 후인 1727년 윤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리허가를 내렸다.¹³⁾ 드디어, 대마도에서 공사관리조직과 건축기술자들이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도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⁴⁾

이렇게 조선은 일본의 수리 요청에 즉시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첫째, 일본이 요청한 수리가 大監董이 아닌 탓에 중앙정부를 개입시키지 않고, 東萊府使로 대표되는 지방정부가 수리를 맡도록 하여, 일의 범위가 중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둘째, 공사의 범위가 대감동에 해당할 만큼 커지자 그에 합당한 물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을 지연했다고 볼 수 있겠다. 초량왜관 수리는 많은 인력과 물력이 소요되는 大役事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초량왜관을 통해 朝·日 양국의 원만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倭使의 上京을 차단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했다.

12) 前掲書

13) 『倭館修理謄錄』, 丁未 閏 3月 11日

監董譯官 崔常集이 병으로 인해 任所가 어렵다는 이유로 崔常集의 사위 劉克愼이 물력을 조사하고, 西館 수리를 맡은 바 있는 韓重億을 差使로 삼아 1727년 윤 3월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14) 『倭館修理謄錄』, 丁未 閏 3月 11日

한편, 일본은 최대한 조선정부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편의에 맞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다. ‘誠信交隣’의 명분으로 제대로 수리해야 하겠다는 뜻¹⁵⁾을 조선 監董官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조선 사람은 사육의 소질이 있어 폐단을 일으킬 수 있으니 監董官을 매번 대면시켜달라고 요청하는¹⁶⁾ 당당함까지 보이기도 했다.¹⁷⁾

이처럼, 때때로 무리한 수리요청을 시도하는 일본에 대해 조선은 수리원칙을 확고히 제시했다. 조선 監董官인 韓重億·金壽九·劉克愼¹⁸⁾이 草梁倭館내 일본인 최고 수장인 館守에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전달하였다.

- 다이쿠(大工: だいく, 목수)·코비키(木挽: こびき, 톱장이) 등은 이른 아침부터 수리장소에 나와서 태만함 없이 일할 것.
- 五節句(ごせっく)¹⁹⁾외에 祝日을 핑계 삼아 수리를 그만두려 하면 안 된다.
- 서로 알려진 병이라면 몰라도 그 밖의 병을 핑계로 휴식하면 안 된다.

15)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
被方より被設置修理等も義被差加事ニ而修理致方□□ニ有之而ハ間近り破損ニ及ニ兩國之堂免ニ不宜事候間此度隨分 念を入被加修理之様ニ兩役監董官江可被申談候間.

16)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
朝鮮人之儀ハ...欲之筋をもて公事を疎路致候事...兩國幣端不罷成様ニ可被相心得候勿論監董官每度被致參會事ニ

17) 이러한 언급이 언제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倭館修理謄錄』, 戊申 7月 27日 경상감사 박문수의 장계에 따르면 그 시기는 監董譯官 金壽九의 偷食(부정) 사건으로 공사가 90여 칸만 조성되고 잠시 중지된 무렵이라고 생각된다.

18) 일본측 왜관관련 사료, 대마도 종가문서인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에 표기된 監董官 韓僉知 金僉正 劉判事는 조선측 왜관관련 사료인 『倭館移建謄錄』 기록된 감동역관 韓重億, 金壽九, 劉克愼이다.

19) 松村 明, 『大辭林』 第二版, 三省堂, 1995
ごせっく란 5개로 대표되는 일본의 명절. 5개의 명절은 人日(음력 정월 7일), 上巳(음력 3월 중 최초의 뱀날), 端午, 七夕, 重陽이며, 이 구절에서의 ごせっく는 시기상 人日(じんじつ)을 뜻한다. 人日에는 七草粥(ななくさがゆ:나なく사로 끓인 죽)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 다이쿠·코비키 등 모두 東館 三大廳 외의 細工에 나가지 말 것.
- 새로 벌목한 나무를 일본인이 대리하여 빼내려 하면 안 된다.
- 일본인이 조선 인족(人足: にんぞく, 조선의 役軍 및 役夫)들을 때리면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를 때는 監董官에게 아뢰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한다.²⁰⁾

이것은 修理節目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 내용은 일본에서 건너 온 기술자에 대한 규제사항이 대부분이다. 특히 다이쿠, 코비키 등의 일본기술자들에게는 아침 일찍부터 공사장에 나와 성실하게 일할 것을 지시하면서, 病名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핑계로 쉬거나, 휴일로 정한 五節句(ごせっく) 외의 축일에 쉬려는 뜻을 예상하여 불허했다.

또한 조선의 공사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 役夫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감동관에게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豆毛浦倭館시절에 경험했던 것²¹⁾처럼 개인 간의 폭력사건이 양국의 외교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특히 주목되는 항목은 일본기술자들이 양국 협의하에 타결된 수리대상인 東館 三大廳 외의 건물은 공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 작별한 재목의 밀반출을 금지한 것이다. 이는 종종 일본인이 조선인과 공모하여 관목을 훔치고 일본으로 되파는 일²²⁾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20)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國史編纂委員會(對馬島宗家文書)4797

21) 『邊例集要』, 卷11 官宇 庚辰(1640년) 10. 양홍숙, 「17세기 두모포왜관의 경관과 변화」, 『지역과 역사』 제 15호, 2004, 12. 두모포 왜관의 동관 수리 과정에서 조정이 일본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동관수리를 점검하기 위해 왜관 안에 들어간 다대포 첩사가 일본인에게 구타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22)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板木盜取候儀ハ朝鮮人とも盜候ニ而日本へ売候由を申人御者候此儀ハ監董官江申聞かせ

이상의 사실을 통해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사적인 교류는 공인된 교류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상부기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사적 경로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각종 물품들이 조선에 유입되고, 조선의 물품들이 일본에 유출되는 일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추정된다. 건축기술자들이 가져온 건축자재나 건축도구 등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 민간에게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조선에서 修理節目을 내세운 것은 草梁倭館의 소유자로서 공사비용을 전담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은 공사시작 전에 다이쿠, 코비키 등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장인들의 임금과 함께 각종 物力價를 선납해 주고, 수리절목에 따라 일본장인들의 공사수행여부를 감독하는 공사관리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선 監董官들은 일본 건축기술자들의 入役日子와 不役日子를 확인하고, 평소 이들의 건강상태까지 파악해 두는 등 세세한 개인정보까지 숙지해서 공사감독을 하였다.

한편, 공사관련 청징(賃銀, 임금으로 받는 銀)을 선지급²³⁾ 받은 일본 다이간(代官)들은 먼저 공임을 받은 만큼 신경을 써서 수리에 임하고자 했고, 조선에서 제시한 修理節目을 엄중히 준수하였다.²⁴⁾

이렇게 체계적 인력관리 능력을 갖춘 조선의 감동관이 제시한 修理節目은 일본 館守이하 카시라야쿠(頭役)로 대표되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23) 일본 사료에서 '先納'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초량왜관이 조선의 소유임을 상기할 때, 선납(돈을 미리 바침)보다 선지급(선불, 미리 돈을 치름)의 개념이 알맞다. 본고에서는 선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4)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先納仕候節ハ細工無油斷可渡候由なり

2-2. 수리비용과 물력의 지급방식

草梁倭館의 모든 건축활동 비용은 조선 정부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倭使가 對馬島에서 공사인력을 모집하고 물력준비까지 완료하면, 조선이 해당 비용을 출급하여 초량 役所로 인력을 들이는 선지급 방식은 초량왜관 창건 때 논의되어, 이후 전례가 되어온 임금 지급방식이다. 창건당시 조선측 사료에는 수장재에 불과한 장지문을 대마도에서 제작하겠다는 일본의 요청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일본측 관계자들이 일본양식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장지문이라 함은 일본전통가옥의 창호재인 쇼우지(障子, しょうじ)를 말하는 것이다. 쇼우지는 일본식 건축의 내부공간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그런 이유로 운송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마도에서 제작된 완제품을 들여와야만 했다.

당시 조선 정부도 경제적 손실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본양식으로 짓는 것을 허용하였다.²⁵⁾ 이렇게 조선의 땅에서 타국 양식을 이루어야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정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면, 일본측이 인력을 모집하고, 물자를 마련하는 식의 공사가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1727년의 <東館三大廳 修理>의 사례를 통해 공사물력의 구청과 지급양상을 살펴보자. 당시 조선에서 출급한 청기는 조선 監董官을 통해서 오다이칸(御代官, おだいかん)²⁶⁾에게 건네졌다. 다이쿠·코비키·사칸(左官, 미장이) 등의 주요장인들은

선지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했고, 일일고용자 히야토(日雇, ひやと)는 특별히 오다이칸을 통해 청기를 받았으며, 청기가 있는 날까지 근무했었다²⁷⁾.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에는 ‘도구카카리(道具掛り)’라는 직명의 倭使가 쓰에쓰키(杖突, 측량담당), 코비키, 사칸 등의 공사인력들과 함께 부산에 도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도구카카리가 대마번의 勘定所(かんじょうしょ)²⁸⁾에 도착하면, 테다이(手代: 에도시대 郡代, 代官 밑에서 세금 징수 등 잡무를 보던 관리)가 대마번 내에서 준비한 모든 건축 도구를 도구담당자인 도구카카리에게 맡겨 부산으로 이송하게 했던 것이다.²⁹⁾

한편 소요 물자 중 긴요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 부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정부가 직접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물력은 당시 草梁倭館에 머물면서 잡물을 담당하던 倭使인 다이칸(代官)을 통해서 청구했는데, 사료에는 공사 때에 사용할 붓과 먹(筆墨: ひつぼく)·종이(紙: かみ)·벼룻집(硯箱: すずりばこ) 1통을 조선에 있던 오다이칸으로부터 받으라는 내용³⁰⁾이나, 관재의 벌목·철물·기와 및 普請小屋(초소)에 쓸 도구, 勞役に

27)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御代官中申談日雇之者 候故賃銀有切之日迄細工致し申

28) 勘定所란 에도시대 막부의 직할영지인 幕領의 城内와 手門(정문) 두 곳에 설치되는, 조세의 징수와 소송 등을 주 임무로 했던 관서였다. 여기서 언급되는 勘定所는 對馬島 내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勘定所의 언급은 享保 11년의 일인데, 이듬해인 享保 12년 閏正月에 工匠들이 上船하여 同月 14일에 일·이호선 모두 對馬藩 안의 久田浦(くたうら)를 거쳐 부산으로 도래하니, 勘定所는 對馬番内の 것이라 할 수 있다.

29)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録』普請道具之儀先規之通手代鈴木惣右衛門御勘定所江仕出道具掛江爲請取

30)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録』筆墨紙硯箱一通右ハ御代官方より請取之様ニ被仰付則於朝鮮ニ候代官方より請取

25) 『邊例集要』卷11 館宇 丙辰 7月, 障子の 제작을 대마도에서 하도록 허락하고 목재로써 대가를 치른다.

26)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두 나라의 무역교섭 및 결제, 각종지급잡물의 수령 및 제촉 등 경제적인 면을 담당한 왜관 내의 관리이다.

쓸 炭薪(탄과 장작) 등을 요구하여³¹⁾, 監董官에게 거둬 통지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모든 수리비용은 조선의 선지급으로 준비되었고, 공사도구 및 중요한 물력의 경우에는 테다이가 대마도에서 미리 준비하였다가 도구담당자 도구카카리에게 맡겨 부산으로 보냈다. 또한, 간단한 잡물인 경우 부산의 왜관에서 다이칸이 준비해 두고 왜사를 맞이하였다.

3. 일본측 공사조직

3-1. 공사 관리조직과 3인組

1727(享保 12)년 閏正月의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에 따르면, 오우라 추자에몽(大浦忠左衛門)과 스기무라 사부로 자에몽(杉村三郎左衛門)이 공사인력을 구성하고 관리할 왜사에게 준수사항인 오보에(覺え)를 제시하였다. 이 오보에는 일본 측에서 조선에 청구하여야 할 사항과 조선의 감동관으로부터 받은 공사시 주의할 사항을 일본초서로 옮겨 적은 카키쓰케(書附, 문서)이다. 이 카키쓰케를 작성한 취지는 오우라가 언급한 조선에서 성취하여야 할 일본의 뜻과 조선의 감동관이 제시한 조선 왜관 내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부산 왜관으로 차출될 왜사들에게 숙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카키쓰케가 유통되는 방식을 통해 공사 관리조직의 직제 구성을 알 수 있는데, 1727년 윤 정월 대마번의 쿠미가시라(組頭)³²⁾ 아사이 우마□자에

몽(淺井馬□左衛門)은 조선 왜관 役所에 보낼 장인을 담당할 대표 관리자 3人, 카시라야쿠(頭役) 우메노 이치로 우에몽(梅野一郎 右衛門)·메쯔케(目附) 나가토메 우자에몽(永留宇左衛門)·테다이(手代) 스즈키 소 우에몽(鈴木惣右衛門)을 하나의 組(くみ)로 결성, 대마번의 조선담당 총 책임자인 초센 오 시하이(朝鮮御支配) 오우라 추 자에몽에게 확인받도록 한다. 이 3人組는 쿠미가시라 앞에서 카키쓰케를 돌려본 후 誓盟血判(피로써 맹세) 할 정도로 양국에서 제시한 수리관련 조항을 숙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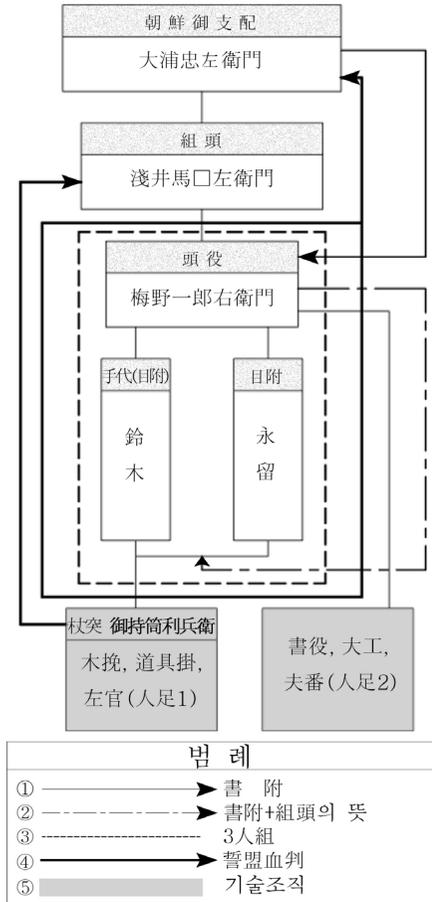
3人組가 된 카시라야쿠·메쯔케·테다이 중에서 카시라야쿠 우메노(梅野)는 고멘(御免:ごぬん, 정식허가 임금) 30호(俵, 가마)와 후치마이(扶持米:ふちまい, 녹미) 4호를 받았는데, 이는 나머지 두 職人, 나가토메와 스즈키보다 각각 10호와 2호를 더 받는 것이었으니, 우메노가 3人組 중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메노는 오우라로부터 직접 카키쓰케를 받는데 비해 나가토메와 스즈키는 중간에 카시라야쿠로부터 쿠미가시라 아사이의 뜻을 첨부한 카키쓰케를 받았다. 사료에는 카시라야쿠가 쿠미가시라의 카키쓰케를 첨가하여 오오메쯔케(大目附)에게 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결성된 조직 중 메쯔케라는 직책은 단 한 사람, 나가토메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오오메쯔케는 곧 나가토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테다이³³⁾ 스즈키도 메쯔케인 나가토메와 동일한 조건으로 카키쓰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데, 모든 상황에서 나가토메와 함께 連名되고, 나가토메와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

31)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録』 修理入用之板伐木鐵物瓦竝普請小屋掛道具役用炭薪等等至迄不差密様ニ被方より差出し申合ニ候間監董官江申達し大々ニ可被相請取候事

32) 松村 明, 『大辭林』 第二版, 三省堂, 1995. 쿠미가시라(組頭)는 에도시대 지방 三役중 하나, 이 三役에는 나누시(名主, 領主 아래의 村長), 학쇼우다이(百姓代, 촌정운영 감시하는 촌민대표), 쿠미가시라(組頭)가 있는데, 쿠미가시라의 임무는 학쇼우다이와 함께 나누시

를 보좌하고 촌의 사무를 보는 것이었다.

33) 前掲書, 에도시대 郡附, 代官, 奉行 등에 속하여 잡무를 담당하는 하급공무원.



<그림 1> 工事管理 組織間の 書附유통

는 등의 사실은 스즈키가 메쓰케 역할을 겸했음을 의미한다. 이 메쓰케는 원래 에도시대 다이묘(大名)들의 감찰담당이었는데, 조선 사료에 표기된 禁徒倭와 同직명으로 『增正交隣志』 差倭條에는 禁徒倭가 22인으로 구성되어 왜관 내에서 交奸이나 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1년 동안의 기간제 役人이었다 하니, 조선 왜관에 도래한 메쓰케는 왜관 내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倭使를 감시하는 역할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공사에는 예전 공사의 폐단 중 일본인과 조선인이 함께 공모하여, 板木을 훔치고 일

본에 되파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³⁴⁾되었고, 이에 대해 館守가 메쓰케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라는 대마도 본부의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동관 삼대청 공사 관리조직 가운데 메쓰케는 순조로운 공사의 진행여부를 파악하는 감찰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메쓰케 나가토메와 함께 連名되는 스즈키는 원래 테다이로서 2-3절에서 언급한 마와 같이 對馬島 안에서 모든 공사소용도구를 준비하는 물력 채비담당이며, 메쓰케 역할도 병행하였던 것 같다.

이 3人組 가운데 카시라야쿠 우메노는 조선 왜관행 1호선의 선두로 카키테(書手, 카키야쿠(書役)라고도 함.) 1인·다이쿠 8인·부방(夫番) 1인·닌소쿠(人足) 1인을 이끌고 대마도를 출항했으며, 2호선에는 나가토메와 스즈키가 쓰에쓰키 1인·코비키 6인·도쿠카카리 1인·사칸 1인·닌소쿠 2인을 조직해서 출항하였다.³⁵⁾ 특히, 다이쿠 8인에는 다이쿠 코가시라(大工小頭) 아오야기 사쿠 우에몽(靑柳作右衛門)과 나미다이쿠(并大工:대공에 준하는 기술자) 7인, 아히루 사부로 우에몽(阿比留三郎右衛門) 이하가 명기되어 있는데, 이로써 우메노 이치로 우에몽은 다이쿠 코가시라 아오야기와 나미다이쿠 7인을 구성하는 다이쿠 가시라(大工頭)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3-2. 工匠조직과 그 직능

일본측 공사기술자는 크게 두 조직으로 결성되어 조선에 건너왔다. 카시라야쿠 우메노는 목구조를 설계하고, 결구할 수 있는 다이

34)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録』 板木盜取候儀ハ朝鮮人とも盜候ニ而日本へ賣候由を申御者候此儀ハ監董官江申聞かせ

[표 2] 1727년 東館三大廳 修理時 일본 기술자와 工價

賃金の 内容 職名 · 人名		칭깅 賃銀 (입은)	후찌마이 扶持米 (녹미)	루수후찌 留守扶持 (가족수당)	시다시깅 仕出銀 (착수금)	고넨 御免 (정식허가 임금)	쓰기멘 月免 (월급)	센츄항마이 船中飯米 (교동비)	닌소쿠 人足
쿠미가시라	梅野一郎右衛門 上下7人 上下5人	銀 86匁	白米4俵	上下7人 反物5反	銀3枚	米 30俵		上下 5人	
메즈케 테다이	永留宇左衛門 鈴木惣右衛門 上下4人	銀 86匁	白米2俵	上下4人 反物3反	銀2枚	米 20俵		3分3勺	
쓰에쓰키	御持筒利兵衛 (人足一人)	銀 50匁	白米1俵		銀20匁 木棉1疋	米 4俵	豆 2斗	10日分	1人
카키야쿠	栗谷佐兵衛	銀 60匁	白米5合 (1인1일)	*(사양)	銀20匁		豆 2斗	30日分	
다이쿠 코가시라	青柳作右衛門	銀 60匁	白米5合 (1인1일)	米7合5勺 (1인1일)	銀20匁	米 4俵	豆 2斗	30日分	1人
나미다이쿠 7人	何比留三郎右衛門 이하 6人	銀 60匁	白米5合 (1인1일)	米7合5勺 (1.5인1일)		米 4俵	豆 2斗	30日分	
코비키 6人	仁右衛門 이하 5人	銀 66匁	白米5合 (1인1일)	米7合5勺 (1.5인1일)		米 2俵	豆 2斗	30日分	1人
사칸	伊兵衛	銀 60匁	白米5合 (1인1일)	米7合5勺 (1.5인1일)		米 2俵	豆 2斗	30日分 *(사양)	
기타	番手小頭 道具掛り大口衛門 夫番 弥助	銀 45匁	白米5合 (1인1일)	7合5勺 (1.5인1일)		米 2俵	豆 2斗		

[단위] ①匁(もんぬ):에도시대 화폐단위, 금 한냥의 1/60.(1匁 =3.75g) ②反(たん):피륙을 세는 단위.(疋).
 ③俵(ひょう): 가마, 섬. ④合(ごう): 평.되의1/10.(홉).
 ⑤勺(しゃく):1홉의 1/10. ⑥分(ぶ): 한돈의1/10. ⑦厘(りん):ぶ의 1/10
 ⑧毛(もう): 厘의 1/10 ⑨枚(まい): 에도시대 丁銀(ちょうぎん: 해상모양으로 주조한)을 세는 단위(=43匁)

[참고] ①공사에 직접 동원된 기술자의 직명 및 임금은 음영으로 표시.
 ②*(사양): 해당 기술자가 해당임금을 사양함.

쿠 중심으로 다이쿠구미(大工組)를 조직하였는데, 이 다이쿠구미는 수장으로 추정되는 다이쿠 코가시라와 나미다이쿠 7인으로 구성되었다. 나미다이쿠란 대공에 준하는 기술자, 즉 보통 다이쿠 무리를 의미한다. 결국, 나미다이쿠의 위에 다이쿠 코가시라라는 직제가 형성된 목적은 공사현장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이쿠 코가시라 아오야기 사쿠 우에몽(青柳作右衛門)으로 하여금 나미다이쿠를 통솔하고 각 다이쿠에게 해당업무를 분담토록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다이쿠

코가시라는 닌소쿠 1인을 데려올(召連)수 있었는데, 이 닌소쿠는 나미다이쿠 중에 한 사람으로, 다이쿠에 준하는 실력을 갖추어 다이쿠 코가시라의 추천으로 해당공사에 개입된 경우로 보인다. 다이쿠 코가시라가 그의 문하에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이쿠구미를 구성하는 초기단계부터 우메노와의 의견교환이 가능했음을 의미하며, 결국 다이쿠 코가시라 아오야기 사쿠 우에몽은 당대 對馬藩내 기술자로서 상당한 신임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카시라야쿠 우메노는 다이쿠코가시라 이하의 다이쿠 8인 이외에도 카키테(書手) 쿠리야사헤에(栗谷佐兵衛)와 부방(夫番)을 동행하여 왜관으로 들어왔다.

카키테 쿠리야는 칭깡 60몬메(匁), 후치마이(扶持米: 녹미) 5고우(合), 시다시 킱(仕出銀: 공사착수금) 20몬메, 쓰키멘(月免: 다달이 지급하는 급료) 豆 2토(斗), 센츄항마이(船中飯米: 교통비) 30일분을 받는 면에서는 다이쿠 코가시라와 같은 대우를 받았지만,³⁶⁾ 다이쿠 코가시라가 받았던 고멘 4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서기관보다 기술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한 셈이 된다. 이는 왜관수리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평시와 다르게 기술자 우선의 수당지급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이때의 카키테는 관수·재관·금도왜와 동행하는 書記倭와는 다른 성격으로, 왜관관련 공사 일지를 기록하는 하급관리였다고 판단된다.

반테(番手: ばんて)는 원래 城을 경호하는 兵士로, 도구카카리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하급관리이다. 다이쿠 등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사칸이 銀 60몬메를 받는 것보다 낮은 銀 45몬메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전문기술없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던 役夫로 생각된다.

한편 메쓰케 나가토메와 테다이 스즈키는 쓰에쓰키, 코비키, 도구카카리, 사칸 등 다양한 직능의 장인들을 구성하여 왜관에 도래했다. 이 가운데 쓰에쓰키 오모찌즈즈 리헤이(御持筒利兵衛)는 카키테 및 다이쿠 코가시라와 똑같이 시타시 킱 20몬메를 받으면서, 그 외에 木棉 1히키(疋)를 더 받고 있고, 후치마이도 카키테 및 다이쿠 코가시라가 고우

(合, 合)단위로 받는데 비해, 효(俵, 가마)단위로 받고 있다. 물론, 칭깡이 카키테나 다이쿠 코가시라보다 10몬메 작고, 센츄항마이가 20日分 작으며, 武士신분³⁷⁾이므로 루수후찌(留守扶持: すすふち, 가족수당)를 받지 못한 점, 공사시 다이쿠와 코비키에게 지급되는 냄비(鍋), 밥통(飯櫃)을 받지 못하는 점(<표 3> 참조)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메쓰케 이상의 직급만이 후찌마이(扶持米)를 효 단위로 받는 점, 시타시킱을 지니며, 닌소쿠 1인을 데려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은 기본적으로 일반 기술자(나미다이쿠·코비키·사칸)를 지휘할 수 있는 상위신분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초센 오 시하이 오우라가 통지한 카키쓰케의 誓盟을 쿠미가시라 아사이 쪽에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職人들이 배를 정박하는 길이나 정박소(船掛所), 근처에서 서맹하는 것³⁸⁾과 비교된다. 원래 쓰에쓰키는 측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에도시대 測量者の 지위는 일본 건설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열악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武士下役의 직분이었다고³⁹⁾알려져 있는데, 상기한 사항은 이러한 보편적 사실과는 다르다. 쓰에쓰키는 공사관리 조직의 한 단계 아래 직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메쓰케와 테다이가 동행한 기술자 중에는 카시라야쿠가 동행한 다이쿠와 거의 동등하게 대우를 받은 職人이 있었는데 그들은 부재의 마름질 담당인 코비키였다. 나미다이쿠와 비교했을 때 고멘 2호를 적게 받았지만 닌소쿠 1인을 더 데려올 수 있었고, 칭깡의 경

37) 御持筒利兵衛(오모찌즈즈 리헤이)의 '御持筒(おもちづつ)'는 銃을 다루는 武士의 신분을 의미한다.

38)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에 書手는 길에서, 나머지 직인들은 후나가카리 쇼(船掛所)에서 서맹하였다.

39) 『講座 日本技術の 社會史6. 土木』, 永原慶二, 株式會社日本評論社, 1988

36) 大工小頭가 받은 留守扶持(가족수당)는 書手が 스스로 사양한 것이었으니 가족수당 또한 大工小頭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우 나미다이쿠가 받은 60몬메 보다 6몬메더 많은 66몬메를 받았다. 특히 닌소쿠 1인을 데려오는 일은 대공 중에서 수장급인 다이쿠 코가시라나, 메쓰케 바로 아래 신분인 쓰에 쓰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코비키 6人(仁右衛門·勘右衛門·六郎助·市三郎·瀬左衛門·三助)은 일반 목수인 나미다이쿠보다 오히려 나은 대우를 받는 숙련공이었다고 생각된다. 원래 코비키가 담당하는 작업의 범위는 樹種의 선택에서 벌채와 가공에 이르기까지 목재가공의 전 공정을 포함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관에 파견된 코비키는 조선 인력들이 絶影島(현재, 부산 영도) 등의 인근 封山⁴⁰⁾에서 채벌하여, 왜관 내로 옮겨진 생나무를 다듬는 일만 하였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1825년 왜관관련 公廩인 草梁客舍 外三門의 개건 공사에 필요한 재목을 벌목하는데 監斫 차사원으로 開雲浦萬戶가, 木材曳運 차사원으로 各道邊將 중에 한명이 차정되었다. 이때 개운포 만호는 원래 왜관의 재목을 監斫하던 실무자로서 木材曳運 차사원과 함께 監斫木手, 木材斫伐木手, 曳下水邊의 役 및 匠手, 奉足軍을 감독하였다⁴¹⁾. 이처럼 왜관관련 벌목 담당자가 조선 관리인 開雲浦萬戶였다는 사실은 왜관조영에 소용될 재목을 벌목하는데 조선 병력(水軍)이 적절히 투입된 사실을 시사하며, 이로써 1차적 작벌 행위에는 조선의 인력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왜관관련 사료에서도 ‘木材斫伐曳運及 船價錢 四百二十七兩 三錢’ ‘浮梯假家木斫伐及載運軍 五十四兩 二錢’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된 ‘斫伐及載運

軍’은 조선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왜관에서 재목 수취방식이 초랑객사의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조선 인력의 伐木과 曳運을 통해 목재가 마련되면, 비로소 코비키의 일이 왜관 내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사칸(미장이)은 나미다이쿠 7인과 코비키 6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은 60몬메, 쌀 2호)을 받았고, 도구카카리(도구담당자)는 반테와 더불어 가장 낮은 임금(은 5몬메)을 받았는데⁴²⁾, 공사도구를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특별한 기술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돕는 役夫의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밝힌 1727년 東館 三大廳 수리시 일본측 조영인력의 임금에 대한 내용은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錄』을 분석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표 2]와 같다.

4. 수리내용과 건축도구

4-1. 카와라부키(瓦葺き)

1727년(享保 12년) 오우라로 부터 신칙된 오보에(覺, 일러두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수리에 사용될 板材木·철물·道具·炭薪(탄과 장작)등을 조선 감동관에게 받도록 하라.⁴³⁾

또한 그 항목 아래, 쓰케타리(附けたり, 붙임)에는 카와라부키(瓦葺き:かわらぶき, 지붕 잇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40) 『邊例集要』, 권11 館宇 丁巳 閏9월
왜관관련 公廩인 宴享大廳의 1738년 修補공사 때는 絶影島에서 벌목하는 전례를 언급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右道 封山에서 取用하였다.

41)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曆錄』, 丙戌 3月 初 7일

건축역사연구 제16권 5호 통권54호 2007년 10월

42)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錄』

43)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錄』
一. 修理入用之板材木鐵物瓦並普請 小屋掛道具役炭薪等等至迄不差密様ニ被方より差出し申合ニ候間監董官江 申達し大大ニ可被相請取候事

작년 기와잇기는 내밀어 이어 비가 샌다. 상한 곳은 빨리 공사하여야 하므로 이번에는 일본에서 기와를 잇는데, 3장 걸리게 지붕잇기를 한다.⁴⁴⁾

결국, 이 동관 삼대청 수리는 지붕수리(修葺)가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선 사료 『倭館修理謄錄』에 동래부사 李重協 이 東館 修理處를 摘奸한 내용에서도 蓋瓦(기와 덮기)·棟梁(마룻대·들보)·板粧의 役을 언급하였으니, 이 공사의 핵심은 지붕가구재의 결구와 카와라부키(瓦葺き:かわらぶき)등의 지붕수리에 있었음이 확인해진다. 쇼우지로 생각되는 板粧이나, 館守家의 기둥·대문·협문(大門連造狹門)의 수리도 언급되지만, 동관 삼대청 모두 공통된 수리장소는 지붕이었다.⁴⁵⁾

본 공사를 지붕수리공사라고 가정한다면 상기한 오우라가 조선감동관에게 부탁한 板材木의 대부분은 지붕널과 산자로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수장재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감동관에게 부탁한 기와는 왜관창건 및 수리 전례를 돌이켜 볼 때,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 기와로 생각된다. 왜관창건 때 김해에서 구워놓은 기와를 왜인이 돈을 주고 사도록 하였고,⁴⁶⁾ 본 공사 직전에 일어난 대감동인 서관삼대청 오행랑 중수(1721)에도 地瓦 110納에 대한 돈이 지불되었으며, 기와를 구워 운송하는 비용에 기계비를 포함한 비용(燔造輪運及器械辦備并金價錢)으로 123냥 5전을 조선이 지불한 점을 보면, 왜관창건 전례를 따라, 조선에서 구워 사용한 것 같다. 특히 해당공사에는 金壽九

가 舊瓦를 사용했다고 하니⁴⁷⁾, 부족한 기와를 새로 굽는다 할지라도 舊瓦와 형태가 같은 기와를 구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근거로 당해공사 보다 앞서 일어난 서관삼대청 오행랑 중수시 기록된 ‘地瓦’라는 용어를 분석함으로써 기와의 모양을 어느 정도 추정해보고자 한다.

‘지와’라는 말은 ‘기와’의 방언으로 강원도, 경남, 전남, 충청 등지에서 일컫어진다⁴⁸⁾고도 하고, 기와의 최초 어원으로 추론되는 디새(딜[陶]+새[草])가 기와라는 현대어로 변화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다⁴⁹⁾고도 한다. 하지만, 이 ‘지와’라는 음을 한문식으로 옮겨 쓴 표현이 ‘地瓦’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地瓦’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지가와라(地瓦:じがわら)라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것은 각 해당 지역의 토지로 만든 기와를 의미한다⁵⁰⁾. 지가와라의 이음방법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추어 다양하게 고안된다는 특징이 있다.

왜관공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감동관들이 왜인에게 부산인근의 金海 燔瓦所에서 기와를 구워쓰게 한 점이나, 地瓦라는 용어자체의 특성으로 보아 기와형태는 일식이 아닌 부산인근지역의 흙으로 구운 한식에 가까운 기와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산인근 지역의 흙을 재료로 하는 地瓦를 이용한 사실은 기와잇기 또한 일반적인 일식으로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47) 『倭館修理謄錄』, 戊申 7月 27日. “金壽九는 舊材 舊瓦를 사용하였음에도 館守倭家 90칸만을 조성하여 조성에서 그를 수상히 여기니...”

48) 이승녕 외,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90

49) 김민수 편, 『우리말 語源사전』, 태학사, 1997
기와의 어원은 ‘디새’이며, ‘디새>지새>지에>지와>기와’로 변화되었다.

50) <http://www8.ocn.ne.jp/~kawarak/ss.html>

44) 『館守屋・市大廳・裁判家修理記錄』
附り瓦葺樣之儀ハ先年修理之節...差延葺候故雨漏...此度ハ日本ニ而葺候通參枚掛ニ葺候樣可被申談候

45) 주석 3)번 참고.

46) 『邊例集要』, 卷11 館宇 丙辰 7月

본 공사에 오우라가 공고한 오보에에 따르면 이전 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번에는 일본에서 기와를 잇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은 기와잇기의 수리물력은 조선이 造備하되 일인기술자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준수사항에는 구체적으로 3장씩 걸쳐서 완성하는 기와잇기 수법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이 기와잇기 방식은 日本工匠이 부산에서 구워진 기와에 맞추어 기와이음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량왜관이 창건되던 시기인 에도시대 일본에는 경량기와인 산가와라(棧瓦:さんがわら)⁵¹⁾가 보급되었고, 산가와라를 이용한 지붕잇기 방법인 산가와라부키(棧瓦葺き:さんがわらぶき)가 도입되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초량왜관의 창건과 수리에는 地瓦를 사용함으로써 특수한 기와 이음방식을 창안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1727년 동관삼대청의 수리내용에 지붕수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왜인들이 공사노역에 사용될 炭薪에 대하여 여러 번 조선의 감동관측에 요구하는 것은 地瓦를 번와할 때 쓰일 연료를 염려한 것으로 생각된다.⁵²⁾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에서 청구되는 땀값은 ‘役用炭薪’이라고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으니, 이는 수리에 소용되는 炭薪을 가르는 것이다.

1783년의 왜관을 묘사한 卜璞의 「왜관도」에 나타난 모든 건물은 기와로 조성되어 있다. 조선이 담당한 건물인 동관 삼대청과 서관 삼대청 육행랑 뿐만 아니라 왜인의 필

요에 의해 그들 스스로 지은 倭側私造家舎까지 모두 기와집이었는데, 각각의 건물이 어느 나라의 책임이냐에 따라 지붕의 연결방식이나 기와 형태가 달라져서 다양한 양식이 혼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4-2. 일본건축 도구의 종류와 용도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에는 물력 및 도구의 사용목적과 내용에 대한 조목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다이쿠 및 코비키와 같은 주요공장과 그 외의 공사인력의 직능에 따라 소용될 物力및 道具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다.

물력 및 도구의 사용목적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감동관과 대면하기 위한 것, 수리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것, 다이쿠 8인에게 지급되기 위한 것, 코비키 6인에게 지급되기 위한 것, 쓰에쓰키 이하의 職人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 등으로 구별되어 있다.

이상의 항목 가운데 특히 수리공사에 사용되기 위한 것(普請用)을 분류한 항목에는 甫串・前抓・□抓・斧・鎌・ハつ里(はつり)・加之柄・小道具柄・鐵手子・鍬등의 도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甫串・前抓・加之柄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일본전통 大工道具의 명칭이 아니다. 한문의 뜻으로 보아 甫串(호쿠시)는 큰 꼬챙이로 쓰에쓰키가 사용한 측량도구라고 추정된다. 쓰에쓰키(杖突)의 직명-杖[지팡이]+突[내밀다,찌르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짚어보기용 막대를 지참하였다. 加之柄은 小道具柄처럼 도구에 쓰이는 여벌의 자루로 사용된 것 같다. 前抓는 마에비키[前挽: 일인용의 타테비키(목재섬유방향으로 자르는 톱)]의 ‘마에(前)’와 ‘굽는다’는 뜻의 ‘抓’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섬유방향으로 다듬는 노미(끝)나 칸나(대패)정도라고

51) 『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7.建築』, 日本評論社, 1988. 和瓦라고도 하는데 좌측의 물결무늬가 障子(쇼오지)의 창살(棧)과 닮았다고 하여 棧瓦라고 한다.

52) 김건서 저·하우봉 역, 『國譯 增正交隣志』 館宇, 민족문화추진회, 1998. 땀값은 보통 왜사가 부산에 도래했을 때 생활용품으로 조선에서 제공하는 것이었다.

추정해보며, 이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쓰에쓰키의 도구로 추정되는 甫串(호쿠시)나 사칸의 도구로 추정되는 쿠와(鍬)를 제외하면 도구의 대부분은 벌목과 치목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본 항목에 제재용 도끼인 오노(斧:おの), 벌목한 나무의 가지치기 용도인 카마(鎌:かま), 목재의 표면을 다듬는 하쓰리(ハツリ), 철로 된 지렛대인 테쓰테코(鐵手子:てつてこ)와 물력부분에 거론된 삼으로 만든 단단한 밧줄인 츠 오즈나(中苧綱:ちゅうおづな)등이 생나무를 벌목하고 적당한 크기로 제재, 치목하여 옮기는데 사용된 도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노는 (斧, おの)는 보통 제재용 도구로 알려져 있으나, 코비키라는 직인이 생긴 15세기 중반 이전에는 제재와 다이쿠의 일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목공구의 부류에 속하였다고 한다⁵³⁾. 이러한 오노는 크게 칼날의 폭이 좁은 요키(與岐:よき)와 칼날의 폭이 넓고 한쪽 면이 잘록한 타쓰키(多都岐 또는 鑿),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그대로 오노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요키·세바(狹刀) 등으로도 불린다. 또한 후자는 마사카리(鉞:まさかり)라고 불린다⁵⁴⁾. 오노(=요키)와 마사카리(=타쓰키) 둘 다 기본적으로 제재용 도구이지만 그 기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村松貞次郎은 18세기 초 도쿠가와 바쿠후(徳川幕府)의 주

요 조연자로 유명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저서 『東雅』⁵⁵⁾에 기재된 요키와 타쓰키의 어원을 인용하여 각각의 도구명이 해당 도구의 용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요키의 '요'는 '가로(요코: 横)'의 의미로 나무를 가로로 마름질하는 것("横ざまに 裁つ")에서, 타쓰키의 '타'는 '세로(타테: 縦)'의 의미로 나무를 세로로 베어내는 것("縦ざまに 削る")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⁵⁶⁾. 이와 같은 기능상의 차이점 때문에 요키는 주로 벌채용⁵⁷⁾으로, 마사카리는 재목의



<그림 2> 마사카리(鉞, まさかり)

(그림출처: 竹中大工道具館)

53) 村松貞次郎, 『大工道具の歴史』, 岩波新書, 1973 P.98. 村松貞次郎은 “호류지를 맡고 있는 대공N씨가 큰 오노를 사용하여 히노끼의 각재를 木口(키구치: 목재를 가로로 자른면)에서 깨뜨리는(打ち割り)식의 제재법을 실연한 적이 있으며, 이 처럼 오늘날의 대공에게도 도구의 준비가 양호한 사람은 오노를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한손으로 쓰는 작은 오노는 종종 눈에 띈다.” 면서 오노도 결코 대공도구의 범주 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54) 『竹中大工道具館収蔵品目録第6号-槌・斧・鉞・その他道具篇-』, 竹中大工道具館, 平成 6年 5月 31日.

55) 『東雅』에 대한 소개는 단행본, 오시마 쇼지, 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감골문에서 간자체까지 한자형성공간의 탐색)』, 산치림, 2003. pp. 68~69. 에 잘 나타나 있으며 다음과 같다.

『爾雅』(한자를 의미에 따라 분류한 중국의 義書.)를 본떠서 『동아(東雅, 1719)』 21권이 저술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 1권이 총론, 제 2권 이하를 천문, 지어(地輿), 신기(神祇) 등 15문(門)으로 나누고, 각 부분마다 고어의 품물명(品物名)을 한자로 제시하고서 이어 그 화훈을 들고서는 여러 전적을 통해 전거를 밝히면서 그 어원을 고찰하고 있다.

56) 村松貞次郎, 『大工道具の歴史』, 岩波新書, 1973 P.99

57) 『竹中大工道具館収蔵品目録第6号-槌・斧・鉞・その他道具篇-』, 竹中大工道具館, 平成 6年 5月 31日. 오노(斧)는(요키를 말함.) 크게 切斧(치리오의)와 割斧(와리오의)로 나누어진다. 切斧는 목재를 橫방향으로 자르는 별채, 절단용의 도구로서, 칼날이 얇아 나무에 침투하기 쉬운 모양을 하고 있다. 割斧는 목재를 종방향으로 도구로 쳐서 깨뜨리는(打ち割り)도구로 칼 폭이

측면을 깎는 것(하쓰루, 削る)과 같은 각재의 뒷나무리(시아게루, 仕上げる)용으로 각기 그 주된 쓰임새를 달리했다.⁵⁸⁾

본 사료에 기재된 ‘오노’는 일반적인 도끼의 의미인 전자의 오노라고 생각되는데, 연이어 기재된 ‘하쓰리(ハツ里, はつり)’와 ‘하쓰(斬, ハツ)’라는 도구명 때문에 상기한 오노의 성격이 더욱 쉽게 규명된다.

원래 ‘하쓰리’는 노미(鑿, のみ)⁵⁹⁾나 타가네(鑿, たがね)⁶⁰⁾로 금속이나 나무, 돌 등을 깎아내서 치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공사행위의 이름이 그대로 도구명으로 전환된 하쓰리 및 하쓰는 앞에서 언급한 마사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마사카리가 소위 나무의 ‘하쓰리(はつり)작업(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한 도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사카리는



<그림 3> 오노(斧, おの)
(그림출처: 竹中大工道具館)

두툼고 췌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切斧, 割斧 모두 주로 벌채용(杣)으로 사용되고 있다.

58) 前掲書

59) 松村 明, 『大辭林』 第二版, 三省堂, 1995
목재·석재·금속 등에 구멍을 뚫거나 도랑을 새기거나 하는데 이용하는 공구.

60) 前掲書, 금속을 절단 하거나 깎거나 하는데 이용하는 강철제의 수공도구로 목공에서 노미(鑿, のみ)에 해당하는 도구이다.

지역에 따라 ‘하쓰리(ハツリ)’, ‘하쓰리요키(ハツリヨキ)’, ‘하비로(ハビロ)’ 등으로도 불려진다⁶¹⁾. 이와 같은 마사카리는 다이쿠와 소마(杣, 나무꾼)의 일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다이쿠의 도구로써 사용되었다고 하니⁶²⁾, 건축을 하기 위한 所定の 부재를 얻어내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던 도구라 할 수 있겠다⁶³⁾.

그런데, 하쓰리와 하쓰가 따로 분류되어 있으면서 하쓰리는 ‘丁’의 단위로 하쓰는 ‘각자에게 하나씩’이라는 의미의 ‘즈쓰(ずつ, 宛)’로 표현되는 것을 보면, 두 도구는 모두 하쓰리 작업을 위한 도구임에 틀림없으나,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3]을 살펴보면 普請用 도구 항목에만 하쓰리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다이쿠·코비키·즈에즈키 외 5인에게는 모두 하쓰가 1개씩 지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청용 도구가 주로 나무의 벌목과 마름질을 위해 준비된 도구임을 생각해보면, 같은 하쓰리 작업을 위한 도구일지라도 ‘하쓰리(ハツ里)’

61) 『竹中大工道具館収藏品目録第6号-杣・斧・鉞・その他の道具篇-』, 竹中大工道具館, 平成 6年 5月 31日.

62) 村松貞次郎, 『大工道具の歴史』, 岩波新書, 1973. P.100

村松貞次郎은 “요키는 樵夫(쇼후)의 도구, 타쓰키는 杣(소마)의 도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杣(소마)와 大工이 분화되어 있지 않는 시대는 타쓰키(=마사카리)는 大工의 도구이기도 했다.” 라고 서술하였다. 사전적 의미로는 쇼후와 소마 모두 나무꾼을 의미하지 만, 여기서 쇼후는 단순한 나무꾼을, 소마는 건축용 재목을 선별하여 벌채하고 다듬는 전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63) 渡辺晶, 『大工道具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4. P.32

渡辺晶은 목조를 만드는 공정에 따라 도구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대별하고 그 중 「造材機能」과 「一次機能」의 도구가 시대의 작용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 건축기술의 발달을 지탱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완수하여 왔다고 저술하였는데, 이 오노가 대형의 노코기리(톱)와 더불어, 원재에서 소정의 크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인 「造材機能」에 포함되어 있다.

는 벌목하여 거친 생나무를 일차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위한 도구로, ‘하쓰(斫: ハツ)’는 하쓰리(ハツ里)등으로 이미 치목된 재목의 세부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로 추정할 수 있다.

원래 하쓰리(=마사카리)는 크게 자루가 긴 대형과 자루가 짧은 소형으로 구분된다. 주로 대형은 벌목에 쓰이지만 소형은 다이쿠의 막일이나 지지깨비를 잘라 췌기를 만드는 일에 사용되었다. 이런 이유로 소형의 마사카리를 특별히 “大工の鉞(다이쿠의 마사카리)”라 하였다.⁶⁴⁾ 이러한 두 종류의 하쓰리(=마사카리)의 기능을 살펴보면, 각각 상기한 하쓰리와 하쓰의 성격에 그대로 대입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쓰리는 생나무를 일차적으로 베고 다듬는 대형 마사카리의 기능을, 하쓰는 세부작업을 하기 위한 소형의 마사카리인 大工鉞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하쓰리는 대형 마사카리의 별칭이며, 하쓰는 大工鉞의 별칭이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普請用 도구에는 농기구와 같은 생활용구가 건축용 도구로 전용된 것도 있었다. 카마(鎌: かま)와 쿠와(鍬: くわ)가 그 대표적 예이며, 이 도구들은 각각 한국의 낫과 괭이에 해당된다. 카마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벌목한 나무의 가지치기 용도로 사용되었고, 쿠와는 그 본래의 용도가 경작을 위한 것으로, 관개수로를 확보하고 논두렁을 축조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⁶⁵⁾ 하지만 본 공사에 사칸이 내한한 사실을 통해 사료에 기재된 쿠와는 ‘네리쿠와(練り鍬)’라고 생각된다. ‘네리쿠와’는 흙벽의 바탕(壁下地)을

[표 3] 1727년 東館三大廳 修理工事の 所用物力및 道具

구분	普請物力및道具의 内容	
	물력	도구
監董對面	幕 1張り(はり) 水桶 2개 小藥罐 1개 薦縁 15枚	參口道具 1통
普請用	中苧綱 2房 手桶 2개 田子2荷 少切桶 2개	甫串 5斤 串 前抓 8丁 斧 2丁 鎌 2丁 ハツ里(はつり)丁 口抓 8丁 加之柄 4丁 小道具柄 5丁 ハツ(斫)2개 鐵手子 2丁 鍬 7丁
大工 8人 지급	鍋 2개 飯櫃 1개 田子 1荷 小桶 1	ハツ(斫) 1개
木挽 6人 지급	鍋 2개 飯櫃 1개 田子 1荷 小桶 1개	ハツ(斫) 1개
杖突, 書手, 道具掛, 左官, 夫番 5인에게 지급	田子 1荷 小桶 1개	ハツ(斫) 1개

만들 때 흙반죽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코테(鏝, 흙손)와 함께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칸 도구이다. 오늘날까지 일본에서는 모르타르 반죽 등을 위해 스텐레스로 제작된 쿠와가 사용되고 있고, 이를 ‘左官鍬(사칸의 쿠와)’라고 부른다.

이상으로 普請用도구는 벌목, 재목의 마름질, 소용재목의 이동, 바탕벽 제작을 위한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쓰리와 하쓰의 존재는 본 공사의 주요내용이 나무의 치목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다이쿠와 코비키 이하에게 모두 하쓰 1개씩을 지급한 것은 4-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붕공사에 들어갈 산자와 수장재를 조

64) 竹中大工道具館收藏品目録 第6号-槌・斧・鉞・鋸・その他の道具篇-, 竹中大工道具館, 平成 6年 5月 31日.

65) 成田壽一郎, 『木の匠』, 鹿島出版会, 1984. p.157

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구의 용도가 마사카리와 비슷하리라고 추정되는 하쓰리와 하쓰와 같은 도구는 조선에 없는 생소한 것이었으므로 당대 同役所에서 작업하던 조선목수 및 부역노동자에게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5. 결론

1727년 동관삼대청 수리시 조선정부의 조영의도 및 관리체계와 일본측 입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공사는 1725년 왜사의 요청으로 2년 동안 조선의 수리준비를 거쳐 1727년에 시작된 공사이다.

감동역관으로 대표되는 조선측 공사감독들은 일본의 공사인력을 관리하는 절목을 제시하였고, 일본측 공사인력들은 조선으로부터 공사비를 선지급 받음으로써 조선의 수리절목을 준수하였다.

조선감동관은 일본공장들의 개인정보를 숙지하여 사역할 정도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능력을 갖추었다. 수리에 사용되는 물력 및 도구와 왜인공장 및 관련 왜사들의 임금은 조선의 선지급으로 준비되었다.

공사 도구 및 중요한 물력의 경우에는 테다이가 대마도에서 미리 준비하였다가 도구카카리에게 맡겨 부산으로 보냈다. 또한 간단한 잡물인 경우 부산의 왜관에서 다이칸이 준비하였다.

일본기술자의 파견과정 및 조영조직의 구성과 직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공사관리책임자는 대마번의 쿠미가시라 아사이가 결성한 3人組, 카시라 야쿠 우메노 이치로 우에몽·메쯔케 나가토메 우 자에몽·테다이 스즈키 소 우에몽이며, 이들은 건축역사연구 제16권 5호 통권54호 2007년 10월

대마도에서 조선 총 책임자인 오우라가 전한 수리관련 조항을 숙지하고, 日本工匠을 조직하여 대마도를 출항했다.

일본측 공사기술자는 크게 두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는데, 카시라 야쿠 우메노는 다이쿠 코가시라이하 나미다이쿠 7인의 다이쿠구미를 편성하였고, 메쯔케 나가토메와 테다이 스즈키는 다이쿠와 상응하는 코비키와 토지 측량자 쓰에쓰키, 미장이 사칸, 도구담당 도구카카리를 포함한 기술조직을 결성하였다. 다이쿠코가시라 아오야기는 다이쿠 무리의 수장으로, 나미다이쿠 중 1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신임을 받는 기술자였다. 측량담당 쓰에쓰키는 일반기술자보다 상위직 기술자로 다이쿠·코비키·사칸 등을 지휘할 수 있었다.

당시 소용물력의 종류를 분석하고 조선에 유입된 일본도구의 종류와 용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본 공사의 주된 내용은 지붕수리였다. 판목은 카와라부키를 위한 마룻대와 들보의 절구와 산자 및 수장재로 사용될 것이었다.

기와는 왜관공사의 전례에 따라서 부산 인근에서 변화한 지가와라였다.

普請用도구는 벌목, 재목의 마름질, 소용재목의 이동 바탕벽 제작을 위한 도구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쓰리와 하쓰의 존재는 본 공사의 주요내용이 나무의 치목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다이쿠와 코비키 이하에게 모두 하쓰 1개씩을 지급한 것은 지붕공사에 들어갈 산자와 수장재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용도가 마사카리와 같다고 보여지는 하쓰리와 하쓰같은 도구는 조선에는 없는 생소한

도구였으므로 당대 同役所에서 작업하던 조선목수 및 부역노동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館守屋・市大廳・裁判家 修理記録』, 國史編纂委員會 圖書(對馬島 宗家文書) 4797
2. 『倭館移建謄錄』, 奎章閣 圖書 12892
3. 『倭館修理謄錄』, 奎章閣 圖書 12923
4. 『邊例集要』, 國史編纂委員會, 1970
5. 『草梁客舍 外三門 改建謄錄』,各司謄錄13, 國史編纂委員會, 1982
6. 김건서 저·하우봉 역, 『國譯 增正交隣志』, 민족문화추진회, 1998.
7. 鄭景柱, 『國譯 倭人求請謄錄』 3卷,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2006
8. 正祖저, 李江魯·方東仁역, 『國譯 華城城役儀軌- 下』, 권5, 財用 上, 수원시, 1979.
9. 이훈, 「[자료소개] 전근대 한일교류사 자료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 『역사와현실』 제28권, 역사비평사, 1998.
10. 양홍숙, 「17세기 두모포왜관의 경관과 변화」, 『지역과 역사』 제 15호, 2004, 12.
11. 오시마 쇼지, 장원철 역, 『한자에 도전한 중국(갑골문에서 간체자까지 한자형성공간의 탐색)』, 산처림, 2003.
12. 『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7. 建築』, 日本評論社, 1988.
13. 『講座 日本技術の社會史6. 土木』, 永原慶二, 日本評論社, 1988.
14.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15. 成田壽一郎, 『木の匠』, 鹿島出版會, 1984
14. 村松貞次郎, 『大工道具の歴史』, 岩波新書, 1973
16. 渡辺晶, 『大工道具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4.
17. 『竹中大工道具館收藏品目録第6号-槌・斧・鋸・その他の道具篇-』, 竹中大工道具館, 平成 6年 5月 31日.
18. 松村明, 『大辭林』 第二版, 三省堂, 1995.
19. 이승녕 외,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90.
20. 김민수 편, 『우리말 語原사전』, 태학사, 1997
21. 鄭禮晶, 『草梁倭館의 造營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01

A Study on Japanese Architectural Craftsmen and Tools in the Constructions of Choryang-weagwan - Focusing on the Repair of *Dongwan-samdaechung* in 1727 -

Chung, Ye-Jung

(Graduate Student. Pusan National University)

Seo, Chi-Sang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oryang-weagwan which was the largest international trading place between Joseon Dynasty and Tokugawa Shogunate had been maintained from 1678 through 1872 in Busan. Particularly, they had 21 times repairing constructions for 20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It is noticeable that Joseon Dynasty permitted Tokukawa Shogunate to construct main pavilions and guesthouses as his style due to the good-neighbor policy between two countries, and Tokukawa Shogunate struggled to achieve his own culture in that place under the supervision of Joseon Dynasty

For satisfying his needs, the architectural craftsmen of Tokukawa Shogunate were mobilized by the chief of construction company which was called *kumi-gasira* in the most of cases. When they came to Busan for the construction, they brought their own architectural tools. On the one hand, the carpenters and workers of Joseon Dynasty were organized by the traditional construction superintendents which were called *Gamdong-gwan* and they had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with Japanese technicians at the same workplace. Judging from this fact, the construction site of Weagwan was the good place for exchanging the architectural technology between two countries.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okukawa Shogunate craftsmen who made the repairs of *Dongwan-samdaechung* in 1727 such as carpenters(*Dai-ku*), sawyers(*ko-biki*), and surveyors(*Tsue-tsuki*) and their tools such as *Hatsuri*(=*Masakari*) and *Yo-ki*(=*Oh-no*). The constructions in this period, there were not only the repairs of 3 major pavilions including the trading center, but also one of the most active repairing constructions comparing with other period, therefor these were important constructions to shows us repairing construction of *Choryang-weagwan* of those days.

Keywords : Choryang-Weagwan, Architectural exchange ,
Japanese architectural craftsmen, Japanese architectural tools.
